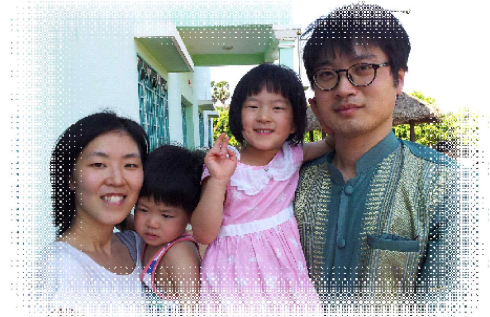


사랑하는 후원동역자님들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족할 줄 알게 되고 주어진 것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즈음,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이삿짐이 도착했습니다.
운송업체 직원들로 큰 짐들을 옮기고 난 뒤, 일손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김성태 선교사님과 그 일행(사역자들)의 도움을 얻어 단기간에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김 선교사님과 일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이삿짐의 빠른 도착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어공부 그 새로운 시작!

교사들의 잇따른 부재로 잠시 중단되었던 언어공부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선교사님의 섬김으로 동역자인 현지인 포 목사님의 강의 하에 신은경 단기선교사님과 인근에서 사역하시는 윤용찬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그룹을 형성하여 매일 2시간씩 프놈펜대학 외국인 언어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어교사를 통해 배웠던 부분을 다시금 나가고 있어 때론 지루하기도 하고, 진도가 빨리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 더욱 지혜와 명철을 구하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공식 행사: 집들이

이삿짐이 들어온 후,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성광 가족인 김영익 선교사님 내외와 데이비드 한 단기선교사님 내외를 초청하여 조출한 점심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것으로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심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챙겨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제는 짐도 왔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는 김 선교사님의 말씀에 한편으로는 선한 부담감과 막막함이 앞을 가렸지만, 또한 그만큼 더 큰 기대와 관심으로 바라봐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열심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사랑으로 챙겨주시는 두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정리 그 후 ...

가정의 짐들이 들어오고 정리되면서, 편한 잠자리와 보다 더 쾌적한 환경으로의 삶이 캄풍참의 삶에 더욱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자녀인 지아와 지훈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 캔 쌓기와 캔 볼링을 놀이의 전부처럼 보내던 날들은 사라지고, 집 마당에 튜브로 물을 받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즐겁게 뛰놀며, 좋아하는 책과 장난감을 가지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좁은 공간에 이것저것으로 놓다보니 조금만 어지르면, 발 딛을 틈이 없다는 점과, 소파와 서랍 등을 밟고 올라가 창문 안전망에 매달려 점프놀이를 하는 통에 행여나 다칠까 염려하는 걱정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짐이 온 후, 자잘하게 이곳저곳 다치는 것을 보며, 크게 다치지 않아 감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염려가 늘 마음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가정(특히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Shining Star Orphanage Letter

3월을 시작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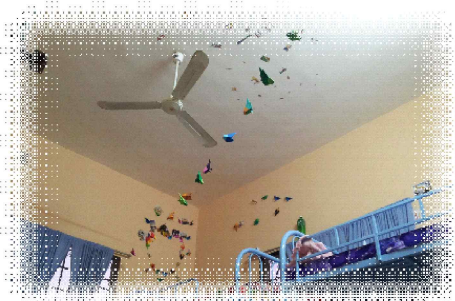
3월의 첫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환경미화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는 룸별 구성원을 변경하여 원아들의 성장과 연령에 따라 재편성하였고, 선풍기 및 기타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운 구성에 따라 원아들 모두 환경미화에 신경 쓰며, 벽과 천장 이곳저곳에 각각의 모양과 장식 등을 달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간 정리하고 정리하면서도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던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공간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보다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거치대 설치 후, 원아들도 자전거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 점차 환경개선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헤어짐, 그리고 또 다른 만남의 시작!

그동안 함께 생활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눴던 슝 레이(Staff)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본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그의 앞날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New Staff]

헤어짐을 뒤로한 채, 본원의 뜻과 비전을 함께 나눌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같이 생긴 그의 이름은 무쭈(Chun; 32살)로 향후 본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밴쿠버한인침례교회와의 만남과 헤어짐]

데이비드 한 단기선교사님의 파송교회인 밴쿠버한인침례교회에서 두 가정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본원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원의 이곳저곳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나눔, 그리고 헌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한 단기선교사님을 필두로 방문한 두 가정과 함께 식당 및 놀이터, 고아원 입구 등을 새롭게 페인트칠하여 환경미화에 집중하였던 3월에 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운 것은 이번 사역을 끝으로 데이비드 한 단기선교사님 가정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로 복귀한 것입니다.

원의 이곳저곳 섬김의 흔적을 보며, 원의 모든 식구가 너무도 아쉬워하고 있어 다시 만날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데이비드 한 단기선교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 다시금 기도부탁 드립니다.



씨앗교회와 배움제양 사역

교회의 예배와 프로그램 운영이 최근 몇 년간 줄곧 정체되어 개선의 시급함이 토로되면서, 개선할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찬양팀 훈련과 예배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순서자들로 미리 준비하여 자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예전 방식이 몸에 밴 상태여서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장 교회다운 교회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찬양팀 훈련]

캄보디아 출국 전, 서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구입한 캄보디아어 회화 책들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언어공부를 먼저 시작하였던 김은경 선교사는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찬양팀 구성원들의 교육을 위해 먼저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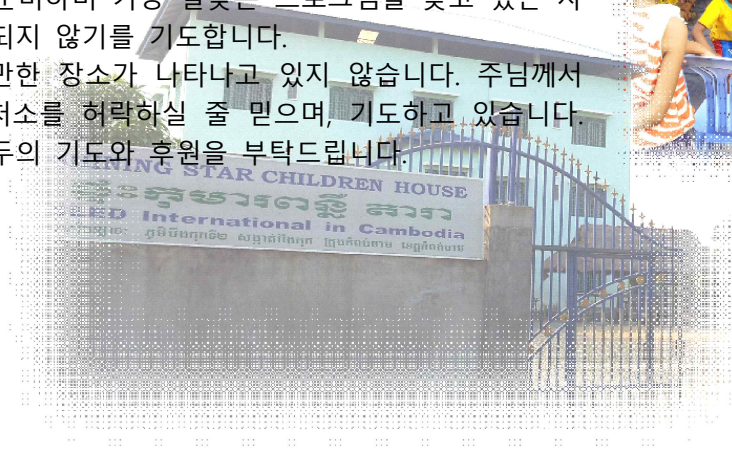
학교 정규과목에 음악수업이 없어 노래를 조금 잘한다 싶으면 소리를 지르기 마련인 이들에게 음악적 요소와 찬양사역자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예배의 시작이 조금은 더 안정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의 소리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맡아 시작하는 김은경 선교사의 첫 사역을 위해 기도부탁 드리며, 찬양팀 리더와 싱어, 악기팀으로 수고하는 모두에게 찬양사역자로서의 마음을 허락하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빼음제양]

매주 나로 교사의 수고와 까끄다 전도사의 열정이 더해지는 가운데, 결혼하였던 날린 전도사가 복귀하였습니다. 특별히 빼음제양 사역을 위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가장 알맞은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사역자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장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역자님 모두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1. 새롭게 시작하는 언어공부의 진보를 위해서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캄보디아 삶의 적응과 정착,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 ①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현지 삶에 적응(음식과 문화),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 ②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건강과 다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뿌르다라 교아원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 ① 원아들의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스런 자가 되도록.
- ② 교회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찬양팀 훈련)과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가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